

담양 '대잎술' 청와대 추석선물 선정

코로나19 의료진 등 1만5000여명에 전달

담양군 추석고을 양조장에서 빛은 전통주 '대잎술'이 을 추석 청와대 선물로 선정돼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청와대 추석 선물세트는 담양 대잎술을 비롯해 충북 홍삼양갱, 강원 원주 건취나물, 경남 거제 표고채, 제주 견고사리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는 이 선물세트를 코로나19 방역현장의 의료진을 포함한 1만5000명에게 보낼 예정이다.

추석고을 양조장에서 빚어진 대잎술은 대나무 잎과 쌀, 누룩, 죽력, 술잎, 진피, 등 몸에 이로한 한약재로 만든 발효 곡주로 알코올 농도는 12%로 목 넘김이 부드럽고 뒤끝이 깨끗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대잎술을 빚은 양대수 명인은 국가 지정한 식품명인 제22호로 전



통기법으로 술을 빚으며 우리 땅에서 난 재료와 전통기법으로 제조한 술의 매력을 후대에 알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청와대 선물로 선정된 우리 고장의 대잎술을 각종 행사에서 추천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담양의 우수한 전통술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로 확보와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성 추석 앞두고 '선행 바이러스' 훈훈

사회단체 · 기업 등 기부행렬 잇따라... 소외계층에 온정

추석을 앞두고 장성군에 나눔의 선행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사회단체와 기관, 기업, 주민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선행 나눔 활동에 잇따라 참여해 온정을 선물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사)희망을나누는 사람들은 1억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장성군에 기탁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사회복지 기관으로 매년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등을 후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희망을나누는 사람들 관계자는 "추석맞이 농촌 희망나눔행동의 일환으로 지원을 추진했다"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장성지역 기업의 기부도 이어졌다. (주)한사랑FS 이찬희 대표는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을 방문해 750만원 상당의 식품세트를 선물했다.

가공식품 관련 전문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명절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음식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누리타운 기탁식에는 한국토



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도 함께했다.

LH는 365생 랍쌀 5kg들이 180개를 누리타운 주민과 독거노인 주거시설인 '사랑의집'에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장성군 북하면에서는 마을 청년들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청년회는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수해를 입은 갈마마을회관에 냉장고, 밥솥, 선풍기 등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다.

청년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이용이 잦은 마을회관이 짐수 피해를 입어 빠른 복구를 바라는 마음에서 물품을 기증했다"고 말했다.

/장성=백종욱 기자

나주 세지 · 봉황 에너지자립마을 확대 조성

2년 연속 공모 선정...국비 18억원 확보

주택 · 시설 476곳 대상 태양광 등 지원

나주시는 2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8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정 구역 내 주택과 건

물·공공시설 등에 2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수요에 맞춰 융·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설치비용의 8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15%에 불과해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어 주민 선호도가 높다.

나주시는 지난해 공모 선정을 통해 공산·반남·왕곡면 일대 330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태양열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약 70%의 사업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내년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세지·봉황면 일대 476가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을별로 태양광 376곳(1158kW), 태양열 100곳(1020㎡·세지 54·봉황 46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을 통해 한 가구당 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월간 전력사용량을 350kWh 가량 약 5만5000원 절감할 수 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비용 절감 뿐 아니라 화석에너지 대체에 따른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서철훈 기자

장흥 '2021년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선정

장평 · 용산 2개 사업 선정... 주민 중심 특색사업 발굴

장흥군은 지난 24일 '2021년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 공모 발표평가를 끝으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 공모를 마무리했다.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 읍·면 행정 대상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된 2021년도 읍·면 지역 특색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읍·면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책이다.

10개 읍·면에서 11개 사업을 응모했고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장평면 '정남진 장흥잡쌀 주산지 활성화 사업'과 용산면 '견고 싶은 섬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장평면 '정남진 장흥잡쌀 주산지 활성화 사업'은 단일 지역 전국 최대 참벼 생산지인 지역특성을 살려 고품질 잡쌀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역대표 농산물을 브랜드화하고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 지역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용산면 '견고 싶은 섬 소등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우수한 바다조망과 경관을 가진 소등섬을 청정 힐링 둘레길과 전망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을이 가진 전설과 설화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남진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계해 지역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장흥=임민기 기자

영광 '해상풍력 대응책 마련' 적극 홍보

3개 관련 부서 합동... 제주도 벤치마킹 나서



영광군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에너지 신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국내 해상풍력 선두주자인 제주도 벤치마킹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 투자경제과, 문화관광과 3개 부서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한국에너지 기술원, 김녕 국가풍력 연구단지, 제주도청 등을 방문하

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해상풍력 개선점, 지역상생방안, 해상풍력 관광활용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영광군은 이번 벤치마킹으로 수집한 자료와 지식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체계적 개발계획 수립과 정부 그린뉴딜 정책이 부합하는 에너지 융·복합 산업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아닌 야간경관 조성 등 관광자원화에도 점목시킬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정부 그린뉴딜과 전라남도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 정책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2020년산 공공비축 쌀 5415톤 매입 예정

화순군은 화순군에 배정된 2020년산 공공비축 총매입량이 5415.4t으로 40kg 기준 13만 5385포대로 10월부터 매입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배정 총매입량 40kg 기준 13만 5385포대 중 건조벼는 8만 2885포대, 산물벼는 4만 7500포대, 친환경벼는 5000포대로 일정별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종류별로는 산물벼 1900t(4만7500포대)을 10월 중순부터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 매입이 끝나면 건조벼 3315.4t(8만2885포대), 친환경벼 200t(5000포대), 피해 벼를 12월 말까지 수매할 예정이다.

군은 24일 2020년산 공공비축 미국 매입요령 등 매입 협의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공비축 미국 매입 일정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읍·면 산업팀장, 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미국처리장(RPC), 벼 건조저장시설(DSC), 화순군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쌀전업농 화순군연합회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관계자 회의에는 처음으로 화순군 농민회 등 3개 사회단체도 참석했다.

화순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상생 행정을 위해 공공비축 미국 매입의 실질적인 주체인 농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와 매입 일정 조기부터 함께해 원활한 공공비축 미국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화순의 가을

올가을, 화순에 꼭 빠지다

이서 규봉암
전남 화순군 이서면 도원길 40-28

천하제일경 화순적벽
전남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 630-1

세랑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랑리 100